

谷 間

산들이 두줄로 줄다름길 치고
여울이 소리쳐 목이 자졌다.
한여름의 햇님이 구름을 타고
이골작이를 빠르게도 건너런다.

山등아리에 송아지뿔 처럼
울퉁불퉁히 어린바위가 솟고,
얼룩소의 보드러운 털이
山등서리에 퍼—렇게 자랐다.

三年만에 故郷 찾아드는
산꼴 나그네의 발거름이
타박타박 땅을 고눈다.
별거숭이 두루미 다리같이……

현 신작이 집행이 끝에
목아지를 매달아 늘어지고,
까치가 색기의 날발을 태우려 날뿐,
골작은 나그네의 마음처럼 고요하다.

一九三六、여름.

곡 간

산들이 두 줄로 줄달음질 치고
여울이 소리쳐 목이 자졌다.
한여름의 햇님이 구름을 타고
이 골짜기를 빠르게도 건너런다.

산 등어리에 송아지 뿔처럼
울퉁불퉁히 어린 바위가 솟고,
얼룩소의 보드러운 털이
산 등서리에 퍼—렇게 자랐다.

삼년만에 고향 찾아드는
산꼴 나그네의 발걸음이
타박타박 땅을 고눈다.
별거숭이 두루미 다리같이……

현 신작이 지팡이 끝에
목아지를 매달아 늘어지고,
까치가 새끼의 날발을 태우려 날 뿐,
골작은 나그네의 마음처럼 고요하다.

1936. 여름.